

●●● 소현희 한솔동물병원장

긍정적 사고가 변화를 만든다



양계와의 인연

소현희 원장은 95년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96년에 백신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서 필드와의 인연을 맺었다. 백신수입업체인 동원신약을 거쳐 메리알코리아에서 양계 필드수의사로서 활동을 했다.

국내 여러 지역 양계현장에서의 기술지원과 마케팅을 담당해 오면서 필드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현장경험이 쌓여지면서 현재의 동물병원

오해도 내년에도 끊임없이 우리 양계농가들은 질병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닭을 사육하여 이윤추구라는 고지를 정복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계사의 질병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날로 더 심해져만 가는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는 수의사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되는 동반자가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양계인의 동반자이며, 여성 수의사로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현희 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 소현희

1995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
1995 (사)한국동물약품협회 기획조사부
1996-1998 동원신약 학술부
1998-2000 메리알코리아 마케팅부
2000-현 한솔동물병원 원장
2007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조류질병학실 석사졸업

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동원신약에 입사할 당시 故 계봉구 대표의 양계질병교육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정제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양계수의사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인연이 되었던, 조류질병학의 전문가로 잘 알려진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모인필 교수 밑에서 최근 학업을 병행하여 올해 초 석사졸업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그 외에도 동물병원의 실험실 업무 전체

를 모인필 교수님의 조류질병
학실에 의뢰하여 신속한 혈청
결과를 얻고 있었다고 하였다.

현재는 경기도 지역(용인,
이천, 여주, 광주, 안성, 음성
등)을 위주로 한솔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관
리농장으로는 다한영농조합법
인, 정원축산, 상신농장, 상지
농장, 이천 채란협회 등의 산
란계 농장과 (주)마니커 육계
농장의 양계질병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역 발상이 장점을 만든다

소현희 원장은 처음에는 국내에서 여성수의사
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아 필드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어떤 농가들을 아파트 관
리 수의라며 농담을 하기도 하며, 여자 수의사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편견도 있었다. 그러나 단
점으로 보일 수 있는 점을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지속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이를 극복해 나갔으며,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면서 단점으로 보이던 편견
들을 역으로 장점으로 변모시킴으로써 농가들이
소현희 원장을 더 잘 기억해 주게 되었고 농가들
과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소 원장은 1999년도부터 월간양계를 통해
양계질병 칼럼을 기고했으며, 최근까지도 농가들
이 필요할 때 양계질병에 관한 심층기사를 기고
하면서 농가들에게 양계수의사로서 자신을 알리
는 계기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강화된 질병관리 서비스

한솔동물병원(원장 소현희)은 지난 1월 25일 다
한영농조합법인(이하 다한) 정기총회에서 2006년
도 질병관리 평가와 2007년도 수의컨설팅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마다 발생한
사항들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하여 강



▲ 다한영농조합법인 정기총회에서 소현희 원장의 발표장면

화된 질병관리 서비스로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간
다는 뜻이 담겨있다.

소 원장은 다한의 가장 큰 특징을 젊은 양계인
들이 모여서 자신의 노하우를 비롯 상호 농장간의
치부까지도 공유한다는 점을 꼽는다. 비밀스럽기
도 할 법한 질병상태나 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들
을 조합원 모두가 공유하고 평가하면서 함께 성장
해 나간다는 점이다.

이날 소현희 원장은 지난 한해 다한의 농장별
질병평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2007년도에는 보
다 발전·변모되는 양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
겠다고 밝히면서 그 중 하나로 폐사계 카운팅 도
입을 제시했다. 정기적으로, 각 농장에서 발생하
는 폐사계를 증상별로 분류하여 카운팅하여 복부
지방축적 정도나 지방간의 정도, 복막염, 수란관
염, 장염, 신장중대, 마력 등을 체크하고, 이렇게
쌓인 자료를 토대로 각 농장의 계군별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사전에 사료회사와 협의하여
사료조절을 유도할 수 있고 예방적 진단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혈액검사로서 ND(Assay:HI), LPAI(Assay:HI),
IB(Assay:ELISA), MG(Assay:RSP), IBD(Assay:
ELISA)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진단을 위한
유전자검사(PCR)도 병행하고 있다. 차후에는 지
방간 조기진단을 위한 혈액화학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리 | 기영훈 기자)